

해인총림 교구발전 위한 열린토론회 개최

“발전위해 고민 해봅시다”



해인총림 해인사의 중흥 진척과 정체성 확립을 위한 새 길 찾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사진은 첫 토론회 발표자인 일면 법등 종림 원택 해원 스님(왼쪽부터).

“지금의 총림은 선원·강원·율원 등 구색 갖추기에 급급한 것 같다. 화엄이나 선학 연구기관을 설립해 평준화보다 특화시키는 것이 효율적이다.”(종림 스님)

“해인사의 오랜 전통인 수행 중심 체제가 붕괴되고, 물질문화에 종속되어 개인주의적 방향으로 흐르는 경향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해인사가 자기비판을 통해 좌표설정을 새롭게 할 때 대중단·사회적 영향력이 확대될 것이다.”(일면 스님)

립 항적 스님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첫 발표에 나선 종림 스님은 총림의 합리적인 운영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내부로는 승가교육의 효율성을 기하고, 외부로는 해인사 방문객에 대한 문화적 접근 강화와 비평가의 비판에 대한 대응도 내놓

“구색 갖추기·평준화 탈피로 특화하자” 좌표설정 새롭게 할 때 영향력 확대될 것

었다. 지금의 총림은 선원·강원·율원 등 구색 뿐이라고 꼬집은 스님은 화엄이나 선학 연구기관 설립을 제안했다. 이와함께 해인사 재정 문제와 관련 “자연환경, 역사적인 조형물로만 버티기보다 선 포는 대장경을 주제로 한 문화 이벤트적인 접근을 시도”하라고 주문했다. 두 번째 발표에 나선 일면 스님은 “각 방 독상이 문화 만연과 대중생활 붕괴로 수행정신이 실종되고 있다”며 “화합과 자율의 승가정신이 복원될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500개를 사야하는 큰절 살림의 어려움을 소개하며 해인사의 만성 재정부족을 거론했다. 또 사찰 입장으로 폐지를 대비한 안정적 재원 확보 방안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해원 스님은 “해인사의 특수성을 살리고 차별화된 ‘수행 중심도량’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선원의 차별화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방부자적 기준 강화, 결제 전 선지식의 제정을 반드시 거칠 것, 산철 간경 또는 간화를 위한 공간 확보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율주 종진 스님은 총림을 통해 “방법보

16국사에 차 올리는 헌공다례 재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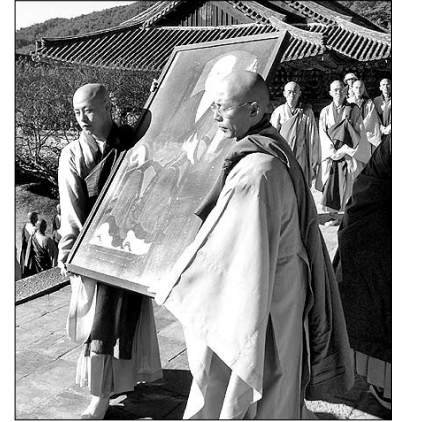
송광사 불교문화축제 성황 지늘스님 유품 등 유물전 눈길

승보총장 송광사의 전통의식을 시연하는 제 1회 송광사 불교문화축제가 11월 6~7일 양일간 송광사 일원에서 봉행됐다. 송광사와 순천시가 공동 주최한 이번 불교문화축제에서는 사부대중과 일반인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불교문화마당, 전시회, 공연마당 등 다양한 행사가 펼쳐졌다.

보조국사 삼존불감 및 16국사 진영 사진이 운으로 시작된 문화마당에서 송광사 대중 스님들은 국대민간 기원 영산재와 16국사 전에 차를 올리는 헌공다례를 재현했다.

성보박물관에서는 보조국사 지늘 스님의 유품인 ‘목조삼존불감(국보 42호)’과 목욕신발인 ‘목욕혜’ 등 유물이 전시됐다.

또한 부도전 앞 진입로에는 송광사의 근·현대를 살펴볼 수 있는 송광사 역사사 진전이, 사자부에서는 전통등연구회의 ‘한



16국사 진영사진이운으로 시작된 문화마당은 영산재, 헌공다례, 음악회 등으로 진행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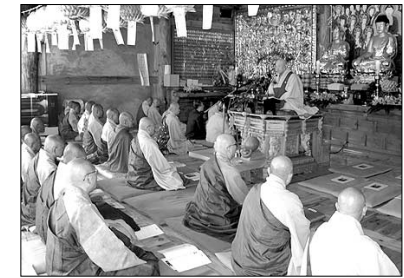
국의 전통등’ 60여점이 선보였다.

한편 송광사는 불교문화축제를 기념해 11월 6일 산사음악회를 개최했다. 이날 음악회에는 안치환, 김원중 등 가수과 창작곡 악실내악단 도드리의 공연이 펼쳐졌다.

순천=이준영 기자

‘호는 바른 사회의 초석’

지암정사 1주년 기념법회



지암 이종욱 스님의 유지를 이어받아 건립된 평창 지암정사(주지 성담)가 11월 7일 개원 1주년 기념법회(사진)를 봉행했다.

(재)지암불교문화재단·불교청년문화원 개원 기념식과 함께 한 이날 행사에는 천운(대홍사 조실), 법장 스님(조계종 총무원장) 등 사부대중 500여 명이 참석, 종욱 스님의 뜻을 기렸다.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은 “사찰 정보화교육 등 청년문화운동을 선도해 불교문화 창달에 앞장서기를 기대한다”고 축사했다.

회주 천운 스님은 “부모와 스승을 공경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선행의 기초를 세우다 두고 지암불교문화재단의 이념을 지켜나가지”고 법문했다.

지암정사 주지 성담 스님은 “지암 큰스님의 선종을 알려 한국 불교의 새 장을 열 것”이라고 말했다.

평창=김강진 기자

자비서림회, 어르신 경로잔치

“할머니 천천히 많이 드세요.” “정말 맛있어요. 이렇게 모처럼 밖에 나오니 바람도 쐬고 너무 좋은 걸.” 11월 10일, 대구시 북구 종합 유통단지

내 한 공동 어시장이 50여명의 할머니, 할아버지들로 가득 차다.

대구 사찰문화보존연구원(원장 효신)의 봉사단체로 자리잡혀온 화정(44)은 11월 10일 대구시내 화성 양로원과 치매 노인 전문 요양시설인 여래원 어르신들을 초청하여 점심공양을 대접했다.

이날 하루 식당은 일체 손님을 받지 않았고, 자비서림회 회원 10여명이 동참해 어르신들의 공양 수발을 들었다. 배지선 기자

술정리 동탑제 지역축제로

제 7회 창녕 술정리 동탑제가 11월 7일 술정리 동탑 앞에서 봉행됐다.

술정리 동탑 지킴이 해일 스님의 동탑 보호 노력으로 시작된 동탑제는 마을 주민을 비롯 전국 각지에서 참여하는 마을 축제가 됐다. 법문, 창녕 여고의 사물놀이, 부산 관음사 합창단의 음성공양, 탑돌이 등의 순서로 진행된 동탑제는 올해 처음으로 촛불을 들고 탑돌이를 하는 잔여제도 가졌다.

해일 스님은 “지금 한창 주변 정비사업과 발굴 조사가 이뤄지고 있어 앞으로 탑 보호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천미희 기자

시민불교문화상 후보 추천

마장불교연합회(회장 원정)는 제 14회 시민불교문화상 후보자를 추천받는다.

문학상, 예술상, 행원상 등 시민불교문화상 후보자는 해당 분야 10년 이상의 전문 활동 경력을 가진 문화예술인, 언론인, 사회봉사자 등으로 당해 연도의 활동이 부각되는 자를 우선으로 선정한다.

추천 대상자의 종교는 무관하며 추천 마감은 11월 20일까지, 시상식은 12월 9일 마산 사보이호텔에서 열린다. (055)222-1393 천미희 기자

‘갯바위 치매센터 열렸다’



감천복지재단이 중증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어르신들을 위해 문을 연 갯바위 치매센터.

감천복지재단, 65세이상 기초생활자 무료

대구 불교계 사회복지법인 감천복지재단(이사장 오정)이 11월 10일 대구 팔공산 갯바위 인근에 ‘갯바위 치매센터’를 개원해 눈길을 끌고 있다. 천혜의 자연환경 속에 위치한 ‘갯바위

치매센터’는 치매, 중풍 등 중증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 대상자를 모시는 무료 노인요양원이다. 공사비 26억원을 투입해 2003년 12월에 착공하여 지난 10월 29일에 준공했다. 연

건평 682평(2,209.97㎡)에 지하1층 지상2층으로 지어진 ‘갯바위 치매센터’는 휴게실, 물리치료실, 기능회복실, 강당 등 현대식 시설을 두루 갖추고 있다. 규모나 시설 면에서 자연과 함께 하는 최신키 노인전문 요양원으로 우리나라 사회복지법인의 새로운 모범으로 자리 잡아가겠다는 각오가 대단하다.

감천복지재단은 감천사 오정 스님이 보리수마을을 근간으로 아이들을 키우면서 출발한 사회복지법인으로 모자일보호시설 ‘자비의쉼터’, 아동양육시설 ‘보리수마을’, 재가복지시설 ‘감천가정봉사원파견센터’, 위탁 운영중인 영·유아보육시설 ‘국민연금어린이집’, 노인요양원 ‘뚝타의 집’을 운영하고 있다. 배지선 기자

법왕사, 33인 큰스님 초청 설법

대구 수성구 파동 법왕사(주지 실상)가 제 13회 백고화법회에 이어 다시 33인 큰스님 초청 법회경대설법회를 봉행했다.

11월 29일부터 12월 31일까지 매일 오전 11시 30분에 봉행되는 이번 법회는 前 용주사 주지 정무 스님을 비롯 무설정사 조실 혜경 스님, 직지사 주지 자광 스님, 미국 버클리 육조사선원장 현웅 스님, 서울 강남포

교원장 성열 스님, 부산 인양사 조실 성공 스님 등이 법회경 대의를 시작으로 서풍, 방편품, 비유품 등을 법문한다.

한편 법왕사는 매일 마지막 주 토요일 밤 9시부터 새벽까지 3차례 철야정진기도법회도 봉행한다. (053) 766-3747 배지선 기자

이름을 밝혀지 않은 비구니 스님이 동국대학교 발전 기금으로 1억원을 보시해 화제가 되고 있다.

동국대학교(총장 홍기삼) 경주캠퍼스에 따르면 부산지역 사찰에 있다는 사실만 밝힌 한 비구니 스님이 평생

익명 비구니 스님

동국대 발전기금 1억 기탁

모은 1억원을 불교정신을 실현하는 동국대학교 발전을 위해 써 달라며 대리인을 통해 전달해 왔다.

동국대학교는 이 기부금을 100주년 기념관으로 건립될 경주캠퍼스 본관 건립기금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배지선 기자

**월간역학 명당탐지기 관통자!!**

사람마다 학설이 다르니 믿을 수도 안 믿을 수도 없는 풍수지리... 이젠 당신 손으로 확인 하세요.

**당신의 궁금한 모든 것!**  
월간역학 필진·월간역학교육원 교수들과 직접 상담하세요. 060)800-2424

이름	전화번호	이름	전화번호	이름	전화번호
이재운주필	02	박일봉원장	09	김옥주원장	18
박인신원장	03	김예영원장	11	최정미원장	19
전종효원장	04	마정만원장	12	전주범원장	21
홍진보원장	05	이정호원장	13	김영순원장	22
신강용원장	06	경태우원장	15	김순양원장	23
백명길원장	07	조성애원장	16		
김태현원장	08	김정석원장	17		

**한 마디로 격이 다릅니다!**

월간역학에는 어중이 떠중이 역술인이냐 헛소리하는 무당이 없습니 다. 역술인들을 교육하는 교수·필진 등 학계의 권위자들이 여러분의 궁금한 점을 정확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전국 시외전화 요금 없이 3분간 무료통화. 이후 30초당 900원. 15분에 1사람 상담하면 2만1천6백원, 30분에 3사람 상담하면 4만 8천 6백 원이므로 역술인을 가리는 것 보다 훨씬 저렴하고 편리하며 정확합니다. 불문신고 (02) 2264-0258

**월간역학 (02)2264-0258 서울 중구 광희동 2가 303-15호 청옥빌라트 101호 www.kbs.cc**